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부활 제5주일

제2195호

2024년 4월 28일(나해)



오늘의 미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요한 15.4).”

▶ 입당송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 화답송

주님, 저는 큰 모임에서 당신을 찬양하나이다.

▶ 제1독서: 사도행전 9,26-31

▶ 영성체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 제2독서: 요한 1서 3,18-2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내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 알렐루야

▶ 복음: 요한 15,1-8

미사 시간 안내

주일미사	토요일 오후 4시
	토요일 오후 7시
	주일 오전 6시 30분
	주일 오전 10시 30분
	주일 오후 4시 (St. Peter & Paul 성당)
평일미사	화, 수, 금 오전 10시 30분
	목요일 오후 7시

■ 병자성사나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환자 또는 망자 발생 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Home : 808.664.0632
Cell : 808.389.1702)

- 주임신부: 이득규(바오로)
- 사 제 관 : (808) 422-1040
- 사 무 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사목 일정

1) 5월 봉성체 안내

5월 봉성체는 5월 16일(목)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병자성사나 봉성체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번호나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이영미 세실리아: 664-0632, Cell 389-1702)

2)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 일정 안내

04월 28일(일)	오후 4시
05월 05일(일)	오후 4시
05월 12일(일)	오후 4시
05월 19일(일)	미사 없음
05월 26일(일)	오후 4시

*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3) 성당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이샬린 바울라 자매님



팔라마수퍼
PALAMA SUPER MARKET

팔라마 상품권 판매

상품권(\$50, \$100)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매 시 성당에 10% Money Back 혜택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판매 중입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목위원회

1) 영상 교육 상영 안내(교육분과)

4월28일(일)	4 복음서 강의, 제 8강 2부
5월05일(일)	4 복음서 강의, 제 9강 1부

- 9시 50분에 시작하도록 합니다.

2) 새 세례자 재교육 안내

일시 : 5월 5일(일) 오전 9시

장소 : 새신자 교리실

담당자 : 최교식 보니파시오 형제님

교육이 있사오니 부활절에 세례 받으신 분들은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교육 후 10시부터 고해 성사를 시작합니다. 참고로 영어 재교육은 추후 안내 공지하겠습니다.

■ **故고순빈(로사)자매님** 자매님께서 4월 11일 향년 90세로 선종하셨습니다. 따님 조원임(아가다), 본당 50주년 준비위원회장인 사위 조데이빗(빈첸시오)형제님이 계십니다. 고인의 영혼을 위해 많은 기도와 연도 부탁드립니다.

장례미사	5월 22일(수) 10시 30분/ 성당
연도	오전 9시 30분

※ 5월 19일 교중미사 후 연령회 모임에 연도가 있습니다.

옥 치과
일반치과, 신경치료, 응급치료 메디케어 제공 / 808-946-2875

동양관광여행사
항공권도매/섬일주/이웃섬 관광/호텔예약 944-3949/info.orient1988@gmail.com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 ◦ 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김남훈(베드로) CPA
회계감사, Book Keeping, 세금보고 947-2470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재산증식/무료상담차 그레고리오 / 226-3344

마마우 바비큐(타운에 위치)
케이더링, 가족행사, 각종 큰 행사 음식전문 예로니모/808-941-6262, 808-743-8200



구역 및 단체 모임 안내



알아봅시다

1) 명도회 모임 안내

일시: 4월 2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2) 꾸리아 월례회의 모임 안내

일시: 4월 28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 룸

3) 성령 기도회 모임 안내

일시: 5월 5일(일) 교중미사 후

장소: 성당



재정위원회 2차 헌금 안내

5월 11일 /12일 Catholic Communication

Campaign 위한 2차 헌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4월20/21):\$13,776

주일헌금	교무금	2차헌금	특별헌금
\$3,398	\$4,120	\$1,136	\$5,122

■ 신앙인의 매력은

공동체 안에서의 신앙생활에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몸담고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의 전인적인 구원을 위해 불린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면서 공동구원의 목표를 이룰 수 있어야 한다. 이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숙의 삶은 친교, 나눔, 봉사, 선교의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 안에 세상과 다른 매력이 존재한다.

1. 친교의 삶 (삼위일체 하느님을 닮아, 일치와 다양성)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2코린 13,13)

2. 나눔의 삶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상징하고 사랑의 생활을 구체화 하는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이다. 그리스도인의 나눔은 공동체 의식 안에서 이루어지며, 특히 성체성사(미사) 안에서 그 절정을 이룬다. 같은 빵, 하나의 빵을 나누어 먹는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의 일치와 나눔을 상징한다. 이는 주님의 몸(성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치와 나눔이다.

3. 봉사의 삶
흔히 봉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선익을 위해 일하는 행위를 생각하곤 한다. 특별히 그리스도교에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하느님께 대한 종교적 의무를 이행하는 일과, 이웃의 정신적 물질적 가난이나 궁핍을 돌보는 윤리적 책임을 완수하는 일을 의미하기도 한다.

4. 선교의 삶(참된 회개와 복음화)
복음은 철저히 우리의 삶을 통한 실천과 증거 생활로 전해진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루카 24,46)라고 말씀하셨다.

5. 기도하는 삶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목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 사람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묵시 3,20)
하느님께서는 항상 우리 마음의 문 앞에서 말씀을 건네고 계시고 우리 마음 속으로 깊이 들어와 일치를 이루고, 사귀고자 하신다. 친교도, 나눔도, 봉사도, 증거도 기도하는 삶이 없이는 불가능 하다.

출처: 성 프란치스코 성당주보

ARBOR Financial Group NMLS# 236669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최 니콜 부동산

Locations,LLC Cell 225-5566

www.ChoiHawaii.com

nicole.choi@locationshawaii.com

메디케어 보험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메리장 가정의학 클리닉

내과, 소아과, 산부인과 진료합니다

예약전화 808-941-7799

A'ALA Meat & Seafood Inc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samseo@aalameatandseafood.com

보나 최 부동산



문의 전화 808-636-5217

bona.choi@cbpacific.com

Coldwell Banker P.P.

성녀 김유리대 올리에타

성인명	김유리대 올리에타 (金琉璃代 Juliette)
축 일	9월 20일
활동 연도	1784-1839년

성녀 김유리대 올리에타(Julietta)는 시골 태생인데, 페레올 주교로부터 굶직한 신자라는 별명을 받은 부모로부터 태어났다. 그 후 가족은 서울로 이사해서 살았는데 올리에타가 17세 되던 해에 부모들이 딸을 출가시키려 하였으나 동정 지키기를 원하는 그녀는 혼인을 거절하고, 자신의 결심이 견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머리카락을 전부 뽑아버려 머리 밑이 드러났다. 이리하여 양친은 하는 수 없이 혼인을 연기하고 머리털이 자라나면 그때 다시 의논하기로 하였다.

이러던 중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자 김씨 집안은 고향으로 피신하였으나 올리에타는 집을 몰래 빠져 나와 왕궁의 나인으로 뽑혀 들어갔다. 10년 동안 궁중생활을 하면서 올리에타는 천주교 계명을 잘 지킬 수가 없자, 마침내는 병을 핑계로 궁에서 나와 어떤 신자 집에 더부살이를 하며 부지런히 길쌈하여 약간의 돈을 모아 가지고 작은 집 한 채를 사서 혼자 살았다고 한다.

그녀는 성격이 강직하고 의지가 굳었으며, 그녀의 언행은 엄격하여 신자들로 하여금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신자들

과의 접촉은 거의 없이 기도와 묵상에 전심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리에타는차라리 죽을지언정 아무 죄도 짓지 않을 여인이다.”고 말하였다고 한다.

기해년 박해가 일어나자 올리에타는 집에서 체포되어 처음에는 포청에서 다음에는 형조에서 몹시 고문을 당했으나, 그녀의 용기는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관헌들이 그녀에게 “배교하고 교인들이 숨어 있는 곳을 밝히고 네 책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진 형벌을 당하리라.”고 으박지르자 그녀는 “매를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내 천주를 배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고발하면 그 사람에게 사형을 내리실 것이요, 책을 갖다 바치면 태워버리실 것이니 입을 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는 죽는 길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근 2개월 동안 참고 인내하던 올리에타는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으니 그 죄목은 사학 서적을 읽고 전파하였으며 사도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9월 26일에 56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에서 순교의 영광을 차지하였다. 그녀는 1925년 7월 5일 교황 비오 11세(Pius XI)에 의해 시복되었고, 1984년 5월 6일 한국 천주교회 창설 200주년을 기해 방한한 교황 성 요한 바오로 2세(Joannes Paulus II)에 의해 시성되었다.

본당 설립 50주년 묵주기도 봉헌

4월 21일까지 묵주기도 봉헌은
총 504,930단입니다.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599-9810, 592-5011

이한주 마태오 재정설계
상속,절세,로템케어,생명보험,연금,
학자금
carlitos3840@gmail.com/213-321-8787

뷰티터치(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만나
Tel:(808)271-4802

(주)에이스원글로벌(사슴태반 전문기업)
“당신의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켜드립니다”
youngminina@gmail.com
문의:류영미 마리아막달레나
808-398-1275

Young Law Group LLC.
한국, 미국 변호사 그룹
상법, 계약법, 상속, 이민
808-591-0722 / 이재영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808-798-5100